대한민국 재도약의 힘, 창조경제
경제혁신 희망의 새시대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6년 7월 5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4.(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7. 4. (월)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담당과장	김재준 과장 (044-203-4080)	담 당 자	송상현 사무관(044-203-4086)

'16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사상 최대치 달성

- '15년 동기대비 18.6% 증가한 105.2억 달러 기록 -

< 2016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개황 >

□ 2016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 신고기준으로 **105.2억 달러**를 기록해 상반기 실적으로 사상 최대, 100억 달러를 초과한 것은 지난 '14년에 이어 두 번째

* 상반기 FDI(단위 : 억$) : ('11)53.6→('12)71.1→('13)80.0→**('14)103.3**→('15) 88.7→**('16)105.2**

○ 도착기준으로는 48.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63억 달러) 23.2% 감소하였는바, '15년 상반기에 18.4억 달러 상당 대형투자금액이 포함된데 따른 기저효과

* 사우디 A사가 '14.9월에 신고한 S사 지분투자 18.4억 달러가 '15.1월 도착

○ 이러한 외국인투자 실적은 세계 경제침체와 경기 불확실성이 심화된 부정적인 투자 여건 하에서도,

- 외국투자가들의 우리경제 기초경제여건(펀더멘탈)에 대한 신뢰와 신산업분야 성장 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

○ 고위급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투자기회 및 환경개선에 대한 정책의지를 외국투자가들에게 재확인

<상반기 장관급 투자유치 활동>

①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3월, 북경), 차이나위크(4월, 서울), 일본 투자가 라운드테이블(5월, 도쿄) 개최를 통해 한국의 투자기회를 적극 홍보하여 외국인 투자가의 한국 투자를 조기현실화

② 주한외국상의회장단 간담회(2월), 서울재팬클럽 간담회(5월) 개최를 통해 외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주여건과 기업환경 개선방안 모색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및 「차이나위크」 주요 성과 사례

① 유젠(티타늄 신소재 생산시설 건립, 0.2억 달러)
- 중국기업과 공동으로 합작해 티타늄 생산시설을 건립하여 티타늄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 강화

② 구천(중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특급호텔, 1억 달러)
- 포항 환호공원내 중국 서부지역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추가 투자 유도를 위한 특급호텔 건립 프로젝트

③ 광치(光啓)그룹(항공·우주 하이테크기술 연구개발(R&D)연구소, 0.1억 달러)
- 항공·우주·신소재분야에서 한국과학기술원 및 국내외 기술벤처와의 협력으로 합작연구 및 상용화 등을 수행하는 연구개발(R&D)센터 건립

「일본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주요 성과 사례

① 도레이BSF(이차전지 분리막 필름 생산공장, 750만 달러)
- 이차전지 분리막 필름 생산공장 준공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 고도기술 이전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플랫폼을 활용한 제3국 수출거점 마련

② 쿠라레(고급자동차용 자동차 접합필름(PVB), 0.5억 달러)
- 안전과 소음방지기능을 강화한 자동차유리 접합필름(PVB) 생산 위한 신규 공장 투자로 일본의 고도기술 이전 효과가 기대됨(B사, 0.5억 달러)

③ 동우화인켐(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터치센서패널 생산공장 투자, 0.3억 달러)
- 오랜 경험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력을 가진 일본기업의 우수기술을 바탕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터치센서패널 생산 공장 증액투자

〈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 **소재·부품산업, 정보기술(IT)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증가세,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가시화**

○ 기존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축소되고, 제조업은 소재·부품분야가, 서비스업은 정보기술(IT)서비스와 금융·보험 분야에서 증가세를 시현

○ 특히, 신소재, 바이오헬스, 고급소비재, 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와 연계된 투자도 가시화되기 시작

【주요 투자신고 사례】

소재 분야

① 탄소섬유 융합기술 및 철강 관련 분야에서 국내 공급과 중국시장 수출 추진을 위해 탄소섬유복합소재 생산공장 신설 (A사, 1억 달러)

② 프로판에서 수소를 제거하여 만드는 프로필렌(PDH) 공장 신설을 통해 국내 수입대체 및 아시아지역 수출증대를 도모 (SK어드밴스드, 0.97억 달러)

바이오헬스 분야

① 한국의 바이오 기술력과 투자국의 연구개발(R&D) 선진기술 및 노하우를 결합해 바이오신약·바이오시밀러(복제약) 생산시설 구축 (B사, 0.16억 달러)

② 실험실 시약·최첨단 생명공학 분석 장비의 제조·공급을 하는 기업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국내 임상연구 및 신약개발 촉진에 기여 예상 (C사, 370만 달러)

고급소비재 분야

① 메이드인 코리아(Made in Korea) 프리미엄을 활용한 중국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제품브랜드 사업을 시작할 예정, 향후 중국내수시장 고급화에 맞춰 다양한 제품개발 및 R&D를 추진할 계획 (D사, 0.2억 달러)

② 섬유·의류 연구개발(R&D)센터 건립(데상트, 5백만 달러)

이차전지(소재) 분야

① 중국 전기차 수요 증가, 산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성화 등에 따른 이차전지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분리막 공장 증설. 이차전지용 분리막의 국내생산을 통한 수입대체 효과와 국내 대기업과의 협력으로 가치사슬(밸류체인) 구축 기대
(E사, 1.5억 달러, F사, 7.5백만 달러)

②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2차전지용 양극재 생산라인 증설 (G사, 0.7억 달러)

□ **문화컨텐츠 분야 인수합병(M&A) 확대와 중국시장을 타겟으로 한 제3국 기업의 국내진출 및 합작투자 사례 증가**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인해 국내 우수인력·기술·노하우·브랜드와 한류콘텐츠 등이 결합되어 중국 등 제3국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인수합병(M&A)투자와 생산기지 구축 투자가 증가

【주요 투자신고 사례】

문화콘텐츠 분야

① 음원·공연·드라마 등 한류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현지 플랫폼을 활용해 소속 아티스트들의 중국 진출을 활성화 (H사, 0.2억 달러)

②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 지분 인수를 통해 한류 콘텐츠뿐만 아니라 한국 선진문화산업 시스템 노하우를 전수받아 중국내 유통망을 활용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장 진출을 가속화 (I사, 0.23억 달러)

③ 중국 모바일·웹 게임 분야의 증가하는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력 있는 한국 게임기업과 합작 투자 (J사, 1.75억 달러)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을 활용한 생산기지 구축

① 국내 공급과 중국시장 수출을 위해 탄소섬유복합소재 생산공장 신설 (A社 1억 달러)

②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신설 프로젝트로 외투단지 내 외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지역 본부(HQ: HeadQuater)화를 추진(K사, 0.1억 달러)

③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테스트를 위한 공장을 증설함으로써 한국을 주력 제품 시장의 거점기지로 육성할 계획 (T시, 1.7억 달러)

〈 국가별 · 업종별 · 유형별 세부 동향 〉

□ **(국가별)** 유럽연합(EU)과 중국발 투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투자는 감소했으나 2분기 들어 빠른 회복세

○ **(증가)** 유럽연합(EU) 42.1억 달러 (221%), 중국 7.1억 달러 (79.5%)

○ **(감소)** 미국 18.1억 달러(△13.7%), 일본 6.9억 달러(△28.8%)

□ **(업종별)** 제조업은 28.5억 달러로 159.6%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은 72.4억 달러로 13.7% 증가

* 제조업 상반기 FDI(단위 : 억$) : ('12) 34.8→('13) 25.3→('14) 34.6→**('15) 10.9→('16) 28.5**

○ **(제조업)** 전기·전자, 운송용 기계, 화공 업종이 21.3억 달러로 높은 비중(74.7%)을 차지하는 등 주력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

구분	투자금액(억 달러)		투자분야 내용 등(억 달러)
	'15년→'16년	증감률	
화공	2.2 → 6.3	182%	석유화합물 (L사, 0.97), 접착제·테이프 (M사, 1)
금속	0.07 → 1.6	1,994%	코발트 정련공장 (G사, 0.7)
운송용기계	0.5→ 6.6	1,231%	전기차 연구개발(R&D) (N사, 0.75), 완성차생산(O사, 4.75)

○ **(서비스업)** 금융·보험, 비즈니스서비스(IT서비스, 광고·디자인, 컨설팅·리서치) 및 부동산임대 업종이 57.3억 달러로 높은 비중(79.2%)을 차지

구분	투자금액(억 달러)		투자분야 내용 등(억 달러)
	'15년→'16년	증감률	
IT서비스	5.8 → 9.9	72%	콘텐츠·미디어플랫폼 구축(P사, 5)
금융·보험	26.4 → 27.7	5%	손해보험회사 신주 취득(Q, 0.4)
문화·엔터	1.0 →1.4	42%	문화컨텐츠(R사, 0.3), 매니지먼트(H사, 0.2)
유통	6.8 → 9.1	35%	국내유통망 활용 도매업(S사, 1)

□ **(유형별)** 그린필드형 투자는 72.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2% 증가하였고, 인수합병(M&A)형 투자는 33.0억 달러로 46.1% 증가

* 그린필드형 투자 : 직접적인 사업장을 새로 건설하는 형태의 투자
인수합병(M&A)형 투자 : 이미 설립된 회사를 매입하는 형태의 투자

〈 하반기 투자전망 및 활동계획 〉

□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 국제기구의 세계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감소 전망*과 함께 세계 경제침체와 경기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어 하반기 투자유치 여건도 녹록치 않을 전망

* '16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및 일부 원자재 수출국가의 저성장 등으로 인해 전년('15년, 1.76조 달러) 대비 10~15% 감소 예상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6)

□ 산업부는 상반기 외국인투자의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수출연계형 ▲산업구조 고도화 연계형, ▲신산업 및 국내 인프라 확충 연계형 외국인투자 발굴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

① **(맞춤형 통합 투자유치활동(IR) 적극 전개)**

(i)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분야 투자와 연계하여 국가별 투자유치 타겟산업을 구체화하여 집중 공략

(ii) 중앙정부, 지자체, 업종별 협단체 및 관련기관 등으로 분산된 투자유치활동(IR)을 통합추진

* 하반기 통합투자유치활동 계획(잠정) : 미국(9월, 장관), 유럽(10월), 중국(11월, 차관), 일본(12월), 외국인투자주간행사 개최(9월, 국내) 등

(iii) 한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외투기업의 증액투자 유도를 위해, 프로젝트별 담당관을 지정하고 일대일 상담, 현장 방문, 애로해소 등 기업단위의 밀착지원 활동을 강화

* '16년 상반기의 경우, 신규투자 : **증액투자** 비율은 43 : **57**

② **(외국인투자주간행사*(9.27~29) 계기 투자유치활동 집중 추진)**

* 국내외 유력투자가 초청하여 산업별 설명회, 상담회, 산업시찰 등을 진행하고,

해외 유력언론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 및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

-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 한국에 기진출한 외투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초청

-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문화·컨텐츠, 의료·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등 투자유치 대상산업을 다각화하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적극 모색

- 국내외 투자관련 유관 기관간 세계적인 연계망 강화를 통해 투자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③ **(프로젝트 지원 및 관리체계화를 통해 신고-도착간 격차해소)**

- 기신고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산업부, 지자체, 인베스트코리아(IK)로 구성한 전담관을 지정하여 투자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

- 외국인투자자가 애로사항을 제기할 경우, 유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신속 해결토록 하여 신고 프로젝트의 조기 실현 추진

④ **(외국인투자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투자분위기 조성)**

- 소셜네트워크(SNS) 및 세계적인 매체 등을 통해 “Global Link to Success (‘16.5월 제작한 투자유치 슬로건)"를 적극 전파해 외국투자가의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일관된 브랜드 구축

- 기투자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성공사례를 발굴해 적극 홍보하고, 해외 유명 산업전시회*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

* 하노버 산업전(4월 실시), 두바이 시티 스케이프(9월), 샤먼무역투자박람회(9월) 등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김재준 과장(044-203-4080), 송상현 사무관(044-203-40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